로컬뉴스

군산교도소 구인·구직 만남의 날

군산교도소(소장 박광래)는 10일 오후 2시 군산교도소 교회당에서 '지혜로운 선택! 희망을 향한 질주!'라는 주제로 2016년도 제4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석방자 및 출소예정자 20명이 참여해 군산교도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아주실업, 쉐보레 나운정비센터, 영국빵집, ㈜새만금종묘수산, 소망광고 등 5개 업체와 취업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상담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군산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등이 참여해 농업기술·창업상담·신용회복·취업알선·주거지원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복구지 현장방문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동연)는 10일 오전 지정폐기물이 매립된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복구지 현장을 방문하여 긴급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지난 달 14일 제196회 정례회 회기 중 가운데 '낭산 소재 폐석산 복구지'를 방문하여, 폐기물의 불법 매립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추진사항과 추진중에 있는 사업 등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익산시에서 내놓은 종합대책은 일부 진일보한 내용이 있으나, 문제해결의 근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시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임시방편의 대안이 아닌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 방안과 빠른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원예작물사업 추가신청

익산시는 8월 19일까지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원예작물 분야 농림사업' 대상자 추가신청 받는다.

이번 추가신청 보조 사업은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고추재배용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이다.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은 수박, 딸기, 토마토, 멜론, 고구마, 감자, 상추, 양파, 버섯 재배 농가가 신청 가능하며, 지원 50%, 자부담 50%로 이뤄진다. 3~4개소를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자는 익산탑마루조공법인에 접수하면 된다.

시설원예 현대화(품질개선) 사업은 관수관비 시설, 환경관리 등 온실·공정육묘장 시설의 현대화를 하게 되며 1~2개소를 해당 농·원협을 통해 신청 받는다.

자세한 사업내역 및 신청서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산업계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문의 ☎859-4972~4)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2016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KSAE Baja/Formula/EV 2016)'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새만금 군산자동차경주장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팡파르

12일~14일까지 새만금 군산자동차경주장·새만금컨벤션센터 일원서

'2016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KSAE Baja/Formula/EV 2016)'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새만금 군산자동차경주장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대학생들에게 자동차 설계 및 제작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자동차산업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자동차공학회(KSAE)가 주최하고 군산시가 후원하는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는 200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0년 제4회 대회부터 7년 연속 군산에서 개최되어 왔다.

올해는 대회 10주년을 맞아 전국 102개 대학 201개 팀에서 약 2,300여명이 참가해 3일 동안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대회는 오프로드 경기인 Baja와 온로드 경기인 Formula, EV와 함께 신선한 아이디어와 독특한 디자인 차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술 부문 등 총 5개 부문으로 개최된다.

기술부문(아이디어, 디자인)에는 흥미로운 차량들이 많이 출전할 예정이며, 기술 아이디어 부문에는 수동과 자동변속기의 장점만을 살린 변속기를 비롯하여 초음파 센서로 구현한 긴급제동 시스템, 사고현장에서 수색은 물론 부상자 후송까지 가능한 구조차량, 승하차 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외부에서 원격 조정으로 주차가 가능한 차량 등이 선보이게 될 예정이다.

디자인 부문에는 날렵하고 역동적인 현대적 디자인과 개성 넘치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대회 10주년을 맞이해 역대 대회 상위 입상팀을 대상으로 하는 우승팀 초청 왕중왕 홈커밍 대회를 비롯하여 일반인 자작자동차대회, UCC동영상 공모전 외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미드쉽 스포츠카 차량인 RM16의 주행시연 등 다양한 기념행사로 관람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회 종합우승팀(KSAE Grand Prix)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및 700만원의 상금이 제공되며, 총 3,500만원 상당의 상금 및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관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회홈페이지(http://jajak.ksae.org)를 이용하면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 야외물놀이장, 최고의 명물로

21일까지 무료 운영

지난달 30일에 개장한 익산 야외물놀이장이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무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명물로 자리매김했다.

중앙체육공원과 모현저류지(모현도서관 옆) 2개소에서 운영되는 야외물놀이장은 대형풀(30m×20m)과 대형슬라이드, 유아풀(10m×10m) 등을 갖추고 8월 21일까지(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개장일부터 8월9일 현재까지 어린이 1만1,000여명과 어른 7,000여명 등 등 총 1만8,000여명이 야외물놀이장을 찾았다.

시는 물놀이장의 철저하고 엄격한 수질관리를 위해 대형풀에 여과기를 돌리고 2~3일에 한 번씩 청소 후 수돗물을 교체하고 있으며, 유아풀의 경우 매일 물을 교체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한 안전요원 5명과 운영요원 8명이 곳곳에 배치되어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운영본부, 의무반과 남·여 탈의실과 함께 놀러온 부모들을 위하여 천막과 파라솔, 그늘막 등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난달 30일에 개장한 익산 야외물놀이장이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무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명물로 자리매김했다.

군산경찰, 안전모 착용 생활화 홍보활동 나서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모 착용 생활화를 위한 홍보와 현장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군산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이륜차 사고는 총 53건 발생 이 중 사망 1명, 부상 60명(동승자 포함)에 이른다. 부상자 중에는 63%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승용차 사고에 비해 약 2.7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의 35.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머리손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전모 착용률은 69%로 일본 99%, 독일 97%, 네덜란드 9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착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경찰은 안전모 착용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김동봉 군산경찰서장은 "시민들 스스로 안전모 착용 습관화를 통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를 당부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 취학아동 금융교육 실시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10일 드림스타트 취학아동 20명을 대상으로 '금융똑똑, 경제 똑똑!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KSD(한국예탁결제원) 나눔 재단의 찾아가는 금융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한 이번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는 경제와 금융생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잠재적 미래의 경제인인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올바른 경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내가 만드는 기업이야기'와 '도전! 금융탐험대'라는 2가지 주제로 경제주체의 개념을 이해하며 스스로 기업가가 되어 보기도 하며 다양한 금융회사와 그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보드게임 등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으로 아동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금융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계획적인 저축과 지출, 투자 등 아이들 스스로 현명하게 용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립해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0~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최우수 기관 선정

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김진호)가 전라북도 주관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 실적을 대상으로 위기청소년 지원 기반조성과 센터의 사업 인프라 및 운영성과 등 4개 분야 12개 지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현장점검, 최종확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를 통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담당 공무원 표창수여 및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진호 소장은 "앞으로도 군산지역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 및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가정과 사회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청소년의 개별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군산=문정곤 기자

나포면 원나포마을, 공주산 자전거 쉼터 조성

나포면 원나포마을에 위치한 공주산에 자전거 쉼터가 조성됐다.

군산시는 공주산의 고조선 역사를 고증하고 이를 시민들과 자전거 여행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금강자전거길에 '공주쉼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공주쉼터에는 '공주쉼터' 현판과 함께 공주산 기원에 대한 안내문도 함께 설치해 방문객들의 이해를 돕게 했다.

공주산은 고조선 준왕이 위만에게 패하고 처음 도착한 곳으로 그의 딸이 머물렀다 하여 공주산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공주산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고조선 준왕에 관한 역사가 전해지는 유서 깊은 곳으로, 준왕이 마한지역에 나라를 세우고 공주를 다시 데리러 왔다는 어래산성도 위치해 있다.

공주산이 위치한 원나포마을 주민들은 "작년 마을가꾸기 사업에 이어 공주산 주변 경관 개선과 함께 공주쉼터를 찾는 방문객들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꽃 파종 등 아름다운 산책로 조성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